

 국토교통부	보도참고자료		
	배포일시	2018. 6. 7(목) / 총 1매(본문1)	
담당부서	항공정책과	담당자	·과장 윤진환, 사무관 권미정 ·☎ (044) 201-4181, 4204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“남북경협 급물살 ... 첫 삽은 삼지연 공항”보도관련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국가재정전략회의(5.31)시 **남북경협 사업 중 공항 개발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없으며,**
- 북측 공항개발 등 경협사업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에 협의 추이를 통해 결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MBC 뉴스, 6.7.) >

◆ 남북경협 ‘급물살’ ... 첫삽은 ‘삼지연 공항’

-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**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여러 남북 경협 사업 중 공항 개발을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**
- 삼지연 공항이 철도나 도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는 돈이 적고 20km 떨어진 백두산 관광까지 연계할 수 있어 단기간에 성과를 볼 수 있음
- 구체적인 개발 구상 등은 현지 실사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는 만큼, 정부는 북미정상 회담의 결과와 제재 해제 속도에 맞춰 논의에 시동을 걸 계획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권미정 사무관(☎ 044-201-418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